

전남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제각각'

유치원 비정규직인 방과후 과정 기간제교원에 대한 명칭과 계약형태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인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테스크포스(TF) 팀 운영을 통해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해 상생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마다 찾아드는 제계약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정원 조정과 채용 조달, 다른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추가 민원, 종사자 내부 갈등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20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사라지고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되고, 이듬해 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 임용이 신설되면서 유치원 방과후 책임자들의 신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

우선 전남을 비롯해 세종, 충남, 전북, 경남 등 5곳은 계약직 교원(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무기계약 즉 교육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단기 계약만료시 신분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6곳은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돼 신분상 안전 장치가 갖춰졌다. 인원은 경기 1612명, 서울 800명, 인천 317명, 대구 257명, 제주 144명 등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전일제(1일 8시간) 12개월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강원, 충북, 경북 등 6곳은 '교육공무원 + 시간제기간제'가 뒤섞인 혼합형으로, 광주와 충북은 계약직이 다수인 반면 나머지는 공무원이 숫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다.

근무형태 역시 전일제(1일 8시간) 12개월, 시간제 기간제(1일 3~5시간) 12개월, 방학중 기간제, 월별보충 기간제, 주당 14시간 시간제 근무 학기중 1일 5시간 '가급' 특별채용 등 제각각이고, 명칭도 유치원 담당자 등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 취급과 정교사와의 차별, 저임금 구조에 상응 고용 불안에 반발한 전남지역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이 무기계약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교육감실 점거 농성이라는 초강수 끝에 TF 구성과 고용 안정 협력을 골자로 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그러나 세부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교사 파임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출신

시간제기간제·공무직·혼합형 등 지역별 달라

도교육청, TF 구성·고용 안정 대안 마련키로

정원 조정·재원·추가 민원·위화감 등 숙제

올과 놓여온 인구 감소로 유치원 신입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대거 증가할 경우, 교사 파임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전환 대상 계약직 교사가 결원보충 기간제를 더하면 720여 명으로, 비슷한 처지의 충남(495명), 전북(512명), 경남(566명), 세종(236명)보다 많고, 서울지역 교육공무직

(800명)수에 육박해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여기에 영어회화강사와 스포츠강사 등 기간제 신분인 비정규직 강사들의 추가 민원에 따른 전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과후 전담사로 전환할 경우 명칭 변경 절차도 선형해야 한다.

일부 시·도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업 지원, 유아 식사지도 등을 둘러싸고 교직원 간 위화감이 일고, 교육의 질 저하, 교사 간 갈등, 자격 수단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 전환 규모와 전환 후 내부 갈등 해소책 마련도 상생을 위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연말까지 TF팀을 가동해 무기계약 전환을 포함한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적의 대안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설 대목맞은 전통시장 설 연휴를 2주일 가량 앞둔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각종 제수용품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원관리 철저' 공문...비정규직 노조 반발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점거 농성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데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각 도급사를 대상으로 '사원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전날 각 도급업체 대표 앞으로 '불법 시설점거 관련 금호타이어 입장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불법 점거 행위는 당시와 귀 업체와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한 지속 여부를 고민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업체 사원들을 철저히 관리·조치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공문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광주공장 크

리룸(Cred Room) 점거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소속된 도급업체에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모든 도급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금호타이어가 원청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에 해당 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당시 공장 점거 농성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의 시작은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3승계(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고, 공장에 못 들어가는 동안 금호타이어 측에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하소연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비정규직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점거를 했던 건 아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행변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측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당시 공장을 불법 점거했던 연로하고 힘없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비정규직 고용 승계문제는 원청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였고, 당시 도급사는 전일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노사 간 근로계약서 체결 조건을 놓고 불발되자 불법 농성이 시작돼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행위를 없던 일로 넘기면 또 다시 불법을 부추기게 돼 재발 방지 촉구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선착장서 차량이 선박으로 추락 1명 숨져

여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갯벌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19일 오후 5시24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선착장에서 산티페 차량이 갯벌에 정박 중이던 선박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차량은 뒤집혔으며 조수석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차량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해경은 차량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경은 "한 남성이 차량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공사장서 용접작업하던 40대 숨져...감전 추정

19일 오전 11시21분께 나주시 빗가람동 한 신축공사장에서 용접공 A(4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쓰러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용접기를 전기콘센트에 연결하다 감전된 것이 아닌가 보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사기금 훔친 말레이시아인 긴급체포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경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70대가 집에 보관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말레이시아인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42분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B(79·여)씨의 집에 침입, 현금 300만원과 수표 20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속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경찰을 사칭하며 '은행 입출금 카드가 부정발급됐다. 현금으로 찾아 집 소파 방석 밑에 보관하라'며 B씨를 속였다.

또 '경찰관이 방문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유로 B씨의 외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자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부산행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부산경찰청에 공조를 요청, 이날 오후 4시32분께 부산 인근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부산서 60대 여성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

부산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택 A(60·여)씨의 집에서 A씨가 안방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언니 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언니 등은 경찰에서 "연일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확인해보니 안방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된 시신은 미이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절도범 합동 추적 50분만에 검거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반지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주한 10대가 경찰과 관할 구청 CCTV관제센터의 합동 추적에 50분 만에 달미를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A(18)군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28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구청 CCTV관제센터 요원은 금은방 절도 관련 무전을 듣고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을 알렸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